

'K-디즈니' 변신 순천만국가정원, 지루할 틈이 없다

남문 스페이스 허브서 개막식...유인촌 장관·김영록 지사 등 참석 '두다다쿵' 캐릭터 등장해 대화...첨단기술·4D 등 즐길거리 다채

'K-디즈니'를 내건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을 모험이 가득한 새로운 정원으로 단장했다. 순천시는 1일 오전 순천만국가정원 남문 스페이스 허브에서 관람객·시민 1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을 내걸고 지난 6개월간 새롭게 단장했다. 개막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남성현 산림청장 등도 참석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국가정원은 '우주'와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등 즐길 거리를 대거 보강했다.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는 '꿈의 다리'는 '스페이스 브릿지'로 재탄생했다.

우주선이 내려앉은 모습을 연출해 175m 구간을 지루할 틈 없이 꾸몄다. 남문 앞 유희공간과 배수로는 '스페이스 허브'로 다시 태어났다. 1만6529㎡(5000평) 규모 공간에 형형색색의 꽃밭과 175m 길이 활주로가 마련됐다.

키즈가든과 노을정원 인근에는 EBS 인기 애니메이션 '두다다쿵'의 캐릭터가 등장한다. 두다다쿵의 캐릭터들과 꼬마 우주인이 함께하는 방문 도장 찍기, '작은 정원사의 모험'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기존 기념품 가게는 '두다하우스'로 꾸몄다. 외관은 자연주의 환경예술가 박봉기 작가의 작품을 통해 '생명의 시원'이 되는 순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했다. 이곳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두다'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누적 조회 수 35억회에 달하는 네이버 웹툰 '유미의 세포들'은 이날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을 앞두고 순천만국가정원에 나타났다. MZ세대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세포 캐릭터들은 다채로운 표정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의 또 다른 볼거리로 거듭났다.

지난해 정원박람회 핵심이었던 '시크릿가든'은 4D 입체 체험을 할 수 있는 '시크릿 어드벤처'로 탈바꿈했다.

우주인 '우드베어'의 박진감 넘치는 여행을 주제로 4D 입체상영과 전시, 프로그래밍 맵핑 등 최첨단 기술을 오감 만족을 할 수 있다.

체험형 숙박시설인 가든스테이는 일과 휴식, 관광이 어우러진 '정원 위케이션'으로 재탄생했다. 이곳은 사전 예약자가 100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남다른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하천 수상 행진도 진행한다. 구간과 야간에 1회씩 진행되는 행렬은 순천만과 국가정원의 다양한 동·식물에서 영감을 받아 꾸려졌다. 답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국가정원과 순천 도심을 즐기는 이색 즐길 거리가 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막식은 지역 어린이 200명과 청년 연합공연을 시작으로, 정원문화도시 도약 선포식, 24개 읍면동 시민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순천만국가정원 개막식이 열린 1일 오전 노관규(앞줄 맨 왼쪽부터) 순천시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시민들과 행진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민 2000여 명은 24개 읍면동 캐릭터의 상을 입고 화려한 행렬을 선보였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국가정원은 우수한 아날로그 요소에 문화콘텐츠를 더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며 "이제 순천은 정원과 문화의 힘으로 정원을 넘어 글로벌 문화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연중 운영되며 매일 마지막 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만국가정원 누리집(schay.su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의 4월은 낙지·개불 제철

미식여행 추천...수협활선어회센터, 낙지 3마리 1만원 내외 구입

봄의 싱그러움이 넘치는 4월, 고흥군은 사계절 정경바다의 맛갈스러운 수산물에 풍성한 '미식 여행'로 꼽힌다.

고흥군에 따르면 4월의 고흥 바다는 낙지(사진), 개불, 해삼, 소라로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풍성한 고흥 밥상을 제공한다.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는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나오는 한민족의 오래된 스테미너 음식이다.

낙지는 타우린, 오메가-3 지방산, 철분, 비타민 B(니코틴산 아미드)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 빈혈에 좋다. 타우린과 니코틴산 아미드는 피로 회복·지방강장제의 주요 성분으로 활력을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킨다.

생김새와는 완전 다른 반전 매력의 '개불'은 5월 전까지만 맛볼 수 있다.

개불에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 알코올 대사를 촉진 시켜 숙취 해소와 간장 보호에 탁월하다. 꼬들꼬들하고 달콤한 맛이 나지만 100g당 67kcal로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중에도 좋고 피부에 좋은 콜라겐과 단백질이 피부미용에 도움을 준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여주인공 전송이(전지현 배우)가 사랑하는 음식으로도 나온다.

농동 수협활선어회센터(고흥군 도양읍 목남가



는길 19)와 나로도 수협활선어회센터(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128)를 방문하면 낙지는 3마리에 1만원 내외, 개불은 4마리에 1만원 내외에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그날그날 바다 날씨와 출하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4월에는 싱그럽고 맛갈스런 낙지와 개불, 소라가 풍성한 고흥에서 미식여행을 추천한다"면서 "주말에는 녹동항에서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드론쇼를 관람하시면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광양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체험비 지원 2배 ↑

118곳 지원대상 선정...유아 10만원·영아 5만원

광양시가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아동을 위한 체험지원 비용을 전년보다 2배 올린다.

광양시는 올해 지역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 10만원, 영아 5만원의 체험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유아 지원비용은 지난해보다 2배 올랐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은 지난 2022년 지원 나이를 3세 이하에서 5세 이하로 확대했다. 당시 지

원금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는 어린이들의 신체·정신적 발달을 돕는 다양한 체험 활동 지원을 위해 유아 1인당 10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신학기 반 편성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이다. 올해는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를 지급받고 있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는 영아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광양시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보육시설 118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보조금 지원대상 어린이는 총 3859명이다. 어린이 체험 지원사업은 ▲2020년 32개소, 1779명 ▲2021년 56개소, 2867명 ▲2022년 118개소, 4791명 ▲2023년 116개소, 4971명을 지원했다. 미술, 공예, 체육 등 지역에서 문화체험이 가능한 사업장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 멜론 농가 안전 먹거리 재배 교육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수수료·안전성 분석비 전액 지원



곡성군이 멜론 재배 농가 80여 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멜론 재배 농가 80여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제도는 작물의 재배환경과 재배과정, 수확, 수확 후 관리 과정에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유해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허용 기준치 이하로 관리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곡성군은 지금까지 750여 농가가 참여해 다양

한 품목에 대해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읍면별 순회하면서 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와 안전성 분석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보성다향대축제 오세요"

군, 광주송정역서 이틀간 홍보

보성군이 다음 달 3-7일 열리는 '보성다향대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이틀간 광주송정역에서 '찾아가는 보성알리미 행사'를 열었다.

보성군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광주송정역 2층 맞이방에서 농특산물 소품물 '보성물'과 '47회 보성다향대축제', 고흥사랑기부제 등을 홍보했다.

이날 홍보에는 자원유튜버, 문화관광과, 인구정책과 총 3개 부서가 참여했다.

지역 농가 160곳의 1100여 개 품목이 등록된 '보성물'은 지난해 42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14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된 '녹차미인 보성쌀'을 포함한 청정자연에서 키운 녹차, 키위, 꼬막, 녹두, 울비알 등을 알 수 있다.

보성군 주요 시책으로 추진 중인 고흥사랑기부제는 지금까지 3억8000만원이 모금돼 목표액 대비 181% 초과 달성했다.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모집 캠페인은 전남도 군 단위 1위를 달성해 상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보성군 직원들이 지난 30일 광주송정역 2층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보성다향대축제와 보성물 등을 홍보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관계자는 "각종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 여러분들이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보성물의 많은 이용

바란다"며 "5월에 개최되는 보성다향대축제 등 통합축제에도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구례군, 장학생 129명 선정 이달까지 1억1600만원 전달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심의회(위원장 김순호 구례군수)는 최근 회의를 열고 장학생 129명을 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45명, 대학생은 성적 우수 25명과 다자녀 9명, 총 34명이 장학생으로 뽑혔다.

구례군은 총 1억1600만원의 장학금을 이달 중에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최고 200만원까지 장학금을 받는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검정고시 합격한 학생에 한해 올해 하반기부터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산단 한국바스프, 지역인재 채용 앞장

산단 기업 24번째 협약 체결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인 한국바스프(이운신 여수공장장)가 여수시와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산단 기업 가운데 24번째다.

정기명 여수시장과 이운신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장은 지난 29일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기관의 상생발전과 여수지역 청년실업 해소, 인구 증가 시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을 통해 한국바스프는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여수시는 많은 산단 기업이 지역인재 우선채용 시행에 참여하도록 도로·하천·교통시설 등 기반 시설 개선으로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했다.

또 기업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운신 여수공장장은 "기업의 성장에는 지역과 상호협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상생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이번 협약을 비롯해 지난 2017년부터 LG화학, GS칼텍스, 남해화학, 금호석유화학, LX MMA, 롯데케미칼 등 24개 여수산단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올해 첫 협약을 계기로 지역인재들이 산단 취업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